

# 鄭澈의 漢陽眞景과 李春躋 家門

김 가 희\*

- I. 머리말
- II. 정선의 《서원첩》
  - 1. 《서원첩》의 재구성
  - 2. 《서원첩》의 회화적 의미와 성격
- III. 정선과 이춘제 가문의 회화수용
  - 1. 정선과 이춘제 가문의 서화취미와 소장품
  - 2. 이춘제 가문의 소장품과 정선의 한양진경
- IV. 맺음말

## I. 머리말

정선(鄭澈, 1676-1759)의 <옥동척강도(玉洞陟崗圖)>, <삼승정도(三勝亭圖)>, <삼승정조망도(三勝亭眺望圖)>는 현재 각각 액자로 장황되어 있는데, 삼성미술관 리움과 개인 등 각기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다. (도 1, 5, 6) 기존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이 세 작품은 1739년에서 1740년 경에 이춘제(李春躋, 1692-1761)를 위하여 정선이 그려주었던 작품으로 과거에는 하나의 화첩이 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1</sup>

\*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

<sup>1</sup> <옥동척강도>, <삼승정도>, <삼승정조망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최완수, 『겸재 정선 진경산수화』(범우사, 1993), pp. 190-195; 同, 『겸재의 한양진경: 북악에 올라 청계천 오간수문 바라보니』(동아일보사, 2004), pp. 36-51; 同, 『겸재 정선』2(현암사, 2009b), pp. 24-38 참조. 최완수는 <옥동척강도>, <서원소정도>, <서원조망도> 세 점의 그림이 한 화첩에 있었음을 관련 시(詩)와 아회기(雅會記) 번역을 통하여 고증하였다; 조규희, 「17·18 세기의 서울을 배경으로 한 文會圖」, 『서울학연구』16(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1), p. 73; 同, 「조선시대 별서도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미술사전공 박사학위논문, 2006a), pp. 241-246; 同, 「家園眺望圖와 조선후기 借景에 대한 인식」, 『미술사학연구』257(한국미술사학회, 2008), pp. 117-126.



도1 정선, <嶺東切岡道>, 1739년, 견본담채, 34.0×34.5cm,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崔完秀, 『謙齋鄭澈眞景山水畫』, 汎友社, 1993, p. 191.)

이 세 작품을 정선에게 주문한 ‘이춘제’는 18세기의 명문경화세족이자 소론탕평론자이었다. 세종대왕의 9번째 왕자 영해군(寧海君) 당(瑯, 1436-1478)의 10대손으로 도승지와 판서를 거쳐 대사간까지 역임하였던 인물이다. 그리고 1731년에는 진위겸진향사부사의 자격으로 청나라에 사행을 가기도 하였다. 한성의 북부 순화방 장의동에서 태어나 정계의 요직을 차지하였던 그는 어떤 이유에서 이 화첩을 정선에게 주문한 것일까? 그리고 파첩되기 이전의 화첩 내의 그림은 이 세 점 뿐이었는지, 화첩의 본래 구성은 어떠한 것인지 의문시된다.

기존의 정선 연구는 안동 김씨 가문과 같은 노론 당파의 가문들과의 서화 교류에 집중되어 있었다.<sup>2</sup> 정선을 노론의 사상인 조선중화주의를 이어받은 ‘노론 사대부화가(老論士大夫畫家)’로 간주하였고, 정선의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畫)는 ‘조선중화주의(朝鮮中華主義)’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으로 인해 다른 노론 가문들에 비해 소론 이춘제 가문과 정선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과연 이춘제 가문이 소장한 정선의 작품은 이 화첩뿐이었는지, 이 작품들이 제작된 것은 이례적인 경우였는지 재고해봐야 한다. 또 이춘제가 친노론적인 성향을 지닌 소론이었기 때문에 정선이 그림 주문에 응하였는지에 대한 실증적 고증이 필요하다.

그동안 이춘제의 문집이 발굴되지 않아 그가 정선에게 그림을 주문한 이유와 가문 소장품의 양상 및 정선과의 관계에 대한 문헌상의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다. 본고에서는 이춘제의 후손 전주이씨(全州李氏) 영해군파(寧海君派)에 비장되어 있던 『이가세고(李家世稿)』와 『완산이씨가승(完山李氏家乘)』의 새로운 문헌자로 발굴을 통해 정선과 이춘제에 관한 논의를 새롭게 진행하려고 한다.(도 8, 9)<sup>3</sup> 『이가세고』에는 이춘제의 문집 『중은재유고(中隱齋遺稿)』를 비롯하여 그의

<sup>2</sup> 정선의 소론 후원자에 대한 조명은 박은순의 연구가 선구적이다. 본고 역시 많은 영향을 받아 작성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박은순, 「사의(寫意)와 진경(眞境)의 경계를 넘어서: 謙齋鄭澈新考」, 『겸재정선: 겸재정선기념관 개관기념 학술도록』, 겸재정선기념관, 2009, pp. 204-235; 同, 「겸재(謙齋) 정선(鄭澈)과 소론계(少論系) 문인들의 후원과 교류(1)」, 『溫知論叢』29, 온지학회, 2011, pp. 397-441.

<sup>3</sup> 『이가세고(李家世稿)』와 『완산이씨가승(完山李氏家乘)』 내에 정선과 이춘제에 관련된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알려주시고 복사해주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정병설 교수님과 지도교수님이신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장진성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가문 내 소중한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무철 전주이씨 영해군파 파종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들들의 문집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화첩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들을 모아, 위의 작품들이 본래 어떠한 구성을 가졌는지 재구성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이 화첩이 이춘제 가문에게 어떤 의미였으며, 정선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가세고』내에 문헌으로 존재하는 이춘제 가문 소장품과 현재 전하고 있는 관련 작품들을 모아 이춘제 가문의 소장품 목록을 복원한 뒤, 소장품의 성격과 이춘제 가문의 서화 취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정선이 소론 당색의 이춘제 가문과도 그림 수응에 적극적으로 응하였으며, 당색을 초월하여 작화활동을 펼치는 화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하고자 한다. 또 이춘제 가문이 정선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중요한 주문자였음을 부각시켜 기존 노론 주문자 중심의 정선 연구에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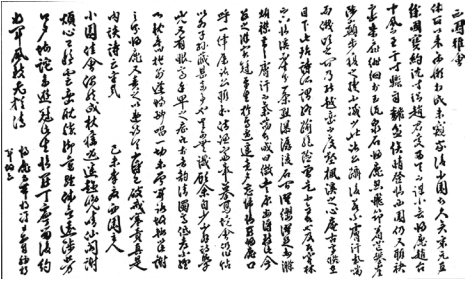
## II. 정선의 《서원첩》

### 1. 《서원첩》의 재구성

이춘제는 1739년 4월 1일 도승지(都承旨)에 임명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1739년 6월 이전 어느 때 관직을 쉬게 된다.<sup>4</sup> 이춘제는 『서원아회기』에 서원아회의 모임에 대해 기록하였는데 이 글은 “기미 계하(己未季夏)” 즉 1739년 늦여름 6월에 쓰였다.(도 2)<sup>5</sup> 이춘제는 1739년 6월 이전 여름 중에 자신의 정원이었던 서원에서 모여 옥류동(玉流洞) 골짜기를 넘어 청풍계(淸風溪)로 등산을 했

<sup>4</sup> 『英祖實錄』卷49, 영조 15년(1739) 4월 1일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영조실록』16(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1), p. 82; 『英祖實錄』卷49, 영조 15년(1739) 5월 7일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위의 책(1991), p. 94.

<sup>5</sup> 최완수, 앞의 책(2009b), p. 27에 『서원아회기』의 탈초와 번역이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休官以來, 病懶相成, 未窺家後小園者, 久矣. 宋元直 徐國寶, 約沈時瑞 趙君受(→慶)兩令, 而謀小會, 歸麓趙台, 聞風而至. 于時驟雨翻盆, 後晴, 登臨西園, 仍又聯袂, 而出柴扉, 徘徊於玉流泉石, 歸鹿忽飛掠着芒, 攀崖陟巖, 步履之捷, 不感小壯. 諸公躋後, 無(→莫)不膏汗氣喘, 而俄頃之間, 乃能城巒, 而度壑, 楓溪之心庵 古亭, 倏在目下. 此殆詩所謂, 終險絕險, 曾是不意者也. 及其穿林而下, 臨溪而坐, 卽一條懸瀑, 潺湲石間, 濯纓濯足, 出襟煩襟, 去之膚汗而氣喘者, 咸曰 微豐原, 安得務此. 今谷之游, 實冠平生. 於亭(→焉)逍遙, 竟夕忘歸, 臨羅, 歸鹿口呼一律, 屬諸公聯和, 請謙齋筆, 摹寫境會, 仍作帖, 以爲子孫藏. 甚寄事也, 豈可無識. 顧余 自少不好詩學, 老(→晚)又有眼高手卑之症, 凡於音韻清濁高低者不經, 與(→心)親舊挹別逢歸酬唱, 一切未嘗(→曾)開路, 故輒以此謝之, 則歸鹿, 又責之以違詩令, 不得已 破戒塞責, 真是肉談詩云乎哉, 己未季夏 西園主人.” 『서원아회기』는 이춘제의 문집 『중은재유고』에 수록된 「西園雅會帖小序」와 중복되는데 작품과 비교하여 위 탈초의 오타를 수정하였다. 본 주석의 굵은 글씨는 필자가 수정을 가한 부분이고 괄호 안의 수정한 글자를 기입하였다: 李春躋, 『西園雅會帖小序』, 『中隱齋遺稿』, p. 933.



도2 이춘제, 「서원아회기」와 「서원아회시」, 1739년 6월, 지본묵서, 40×67.5cm, 모암문고 소장

해 그림을 그린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정선과 이병연은 서원아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자 중 한 명이었던 서종벽의 문집 『사오재유고(謝吾齋遺稿)』에는 「옥류동에서 조풍원(조현명)과 이중희(이춘제), 황양보(황정), 조군경(조영국), 심시서(심성진), 송원직(송익보)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풍원공이 말한 운에 차운하다」라는 제목으로 수창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옥동척강 모임에 참여했던 참석자 7인의 이름과 그들 각각의 수창시(酬唱詩) 전문(全文)이 실려 있는데, 조현명의 운에 맞춰 이춘제,

황정(黃暾, 1689-1752), 조영국(趙榮國, 1698-1760), 심성진, 송익보, 서종벽이 차운한 것이다.<sup>8</sup> 기존의 연구에서의 정선과 이병연 대신 황정과 조영국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 즉 정선은 이춘제의 서원 아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이후 이춘제의 주문을 통해 그림을 제작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정선의 진경산수화가 반드시 아회에 참석하여 실경을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통해서도 제작이 가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도3 정선, <풍계임류도>, 1739년, 견본담채, 34.0×34.5cm, 개인소장(『韓國의美 1: 謙齋 鄭敎』, 中央日報社, 1997, 도7)

이춘제의 아회는 옥류동에서 시작하여 청풍계에서 끝나는 모임이었다. 그러나 아회의 장면을 그린 <옥동척강도>는 아회가 시작되는 옥류동의 풍경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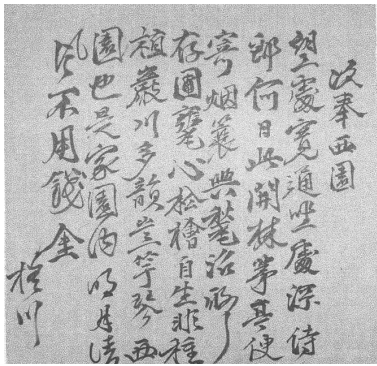
6 최완수, 앞의 책(1993), pp. 190-195 참고,

7 최완수, 앞의 책(2009b), p. 24.

8 徐宗璧, 「玉流洞與趙豐原(顯命) 李仲熙(春躋) 黃陽甫 趙君慶 沈時瑞(星鎮) 宋元直(翼輔) 會話次 豊原公 口占韻」, 『謝吾齋遺稿』(규장각 소장, 圭3428 884 00), M/F81-103-407-A, pp. 49-51.

묘사한 작품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작품이 <풍계임류도(楓溪臨流圖)(도 3)이다. 1977년 중앙일보사가 출판한 『한국의 미: 겸재 정선』에 단 한 차례 출판되어 초판에는 실려 있다가 재판되면서 누락되어, 그동안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연구되지 못한 작품이다.<sup>9</sup> <풍계임류도>는 놀랍게도 <옥동척강도>와 작품의 크기가 가로 34cm, 세로 34.5cm로 동일하고, 화면 우측에 관서를 쓰고 인장을 찍는 방식이 같다. 또 “풍계임류(楓溪臨流)”는 “청풍계에서 시냇물을 내려다보다”라는 뜻으로 “옥류동 골짜기를 넘다”라는 의미의 <옥동척강(玉洞陟崗)>과 대구를 이룬다. 또 <옥동척강도>의 골짜기를 등산하는 7인의 인물이 <풍계임류도>에 동일하게 나타나 두 폭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1740년 3월 이춘제는 아회가 있었던 서원에 정자를 축조한다. 서원에 새로 지은 정자에 대해 쓴 이춘제의 「서원소정자서(西園小亭自叙)」에 “정신년 모춘 서원에 작게 축성하였다.(庚申暮春西園小築成)”라는 언급이 나와 정원을 새로 가꾸고 정자를 축성한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다.<sup>10</sup> 이후 이춘제는 정선에게 새로 지은 자신의 정자에 대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주문하여 받은 것이 <삼승정도>와 <삼승정조망도>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조현명의 「서원소정기」에서 정자의 이름을 ‘삼승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을 받아들여 작품의 이름을 <삼승정도>와 <삼승정조망도>라고 칭하였다.<sup>11</sup> 그렇지만 이춘제와 그의 가문의 그 어떤 글에도 이 정자의 이름이 실



도 4 이병연, 「서원소정시」, 1740년, 견본묵서, 40×67.5cm, 정충기 소장(삼성미술관 리움 기탁보관, 정충기 제공)

제로 ‘삼승정’이라고 불리었던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조현명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이춘제 가문의 사람들은 서원의 ‘소정’이라고 주로 칭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 작품의 제목은 <서원소정도>와 <서원조망도>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 네 점의 정선 그림과 이병현, 조현명의 시와 기문들은 하나의 화점으로 장황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춘제의 아들 이창급의 문집 『일와옹유고』에는 이춘제 가문의 소장품을 열거한 「구장경적(舊莊經籍)」이라는 글이 있

<sup>9</sup> 金元龍等編, 『韓國의 美: 謙齋 鄭澈』(중앙일보사, 1977), 도7 『風溪臨流』참고. 1977년도에 초판 발행된 책에 실려 있던 <풍계임류도>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1983년도에 개정판에는 누락되어 있다. 도판의 툰이 좀 더 푸르고 어둡게 찍혀있는데 컬러보정을 하면 <옥동척강도>와 세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sup>10</sup> 서원의 소정의 축조년도에 관해서는 李春躋, 「西園小亭自叙」, 『中隱齋遺稿』, p. 933.

<sup>11</sup> 최완수, 앞의 책(2009b), pp. 34-38에 전문과 번역 참고.; 조현명이 이춘제에게 지어준 이 시는 조현명의 문집 『歸鹿集』에도 중복 수록되어 있다. 趙顯命, 「次李仲熙 春躋 西園軸中韻」, 『歸鹿集』卷3, 民族文化推進會編,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212(民族文化推進會, 1998), p. 100a.

다.<sup>12</sup> 여기에서 이 화첩의 잃어버린 이름, 《서원첩(西園帖)》을 발견할 수 있다.

표 1 《서원첩》의 작품 목록

| 사건   | 지은이 | 제목                  | 크기          | 소장          | 제작시기     |
|------|-----|---------------------|-------------|-------------|----------|
| 서원아회 | 정선  | 〈옥동척강도〉             | 34,0×34.5cm | 삼성미술관 리움    | 1739년    |
|      |     | 〈풍계입류도〉             | 34,0×34.5cm | 개인 소장       | 1739년    |
|      | 이춘제 | 「서원아회기」,<br>「서원아회시」 | 40,0×67,5cm | 모암문고        | 1739년 6월 |
| 서원소정 | 이병연 | 「서원소정시」             | 34,0×34.5cm | 정충기(리움기탁보관) | 1740년    |
|      | 정선  | 〈서원소정도〉             | 40,0×67,5cm | 정충기(리움기탁보관) | 1740년    |
|      |     | 〈서원조망도〉             | 40,0×67,5cm | 모암문고        | 1740년    |
|      | 조현명 | 「서원소정기」,<br>「서원소정시」 | 40,0×67,5cm | 모암문고        | 1740년 6월 |

## 2. 《서원첩》의 회화적 의미와 성격

이춘제는 2년 동안 정선에게 두 차례나 그림을 주문하고, 이병연과 지인들에게 시와 기문을 받아 《서원첩》을 공들여 제작하였다. 그는 「서원아회기」에서 “시화첩을 만들어 자손이 수장하게 한다”라고 하였다.<sup>13</sup> 화첩을 제작한 표면적인 목적은 자손들을 위해서라고 하였지만 결국에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자랑스러운 선조로 기억되고 싶은 본인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춘제는 《서원첩》을 제작하여 후손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기를 원하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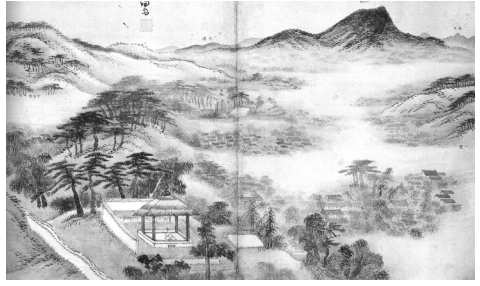
먼저 〈옥동척강도〉와 〈풍계입류도〉를 살펴보면, 골짜기를 올라가는 장면과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장면을 중심에 두어 그렸다.(도 1, 2) 작품 전체의 구도는 이 골짜기와 계곡이 인왕산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였는지에 대한 주변의 지형적인 정보를 생략하여, 실제로는 이춘제의 집 뒷산에 올라간 것뿐인데도 금강산과 같은 명산을 유람하듯이 표현하였다. 또 〈서원소정도〉와 〈서원조망도〉에서 정자의 주인인 이춘제는 사방관을 쓰고 평복을 입은 ‘은거자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도 5, 6) 이춘제는 「서원소정자서」에서 소정이 조용함을 좋아하는 자신의 성품에 맞게 산수 사이에 있으며, “무릎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크기이고, 풀계단과 연못도 깊게 파지 않아 “사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자신의 ‘서원’과 ‘소정’이 사치스럽고 시끄러운 곳으로

<sup>12</sup> 李昌伋, 『舊莊經籍』, 앞의 책, pp. 1653-1659 참고. “『구장경적(舊莊經籍)』 경서(經書) 1질, 사기(史紀)를 편집본, 명사강목(明史綱目), 주서(朱書), 삼소문(三蘇文), 《만별첩(輓別帖)》, 《영설첩(詠雪帖)》, 《서원첩(西園帖)》, 《오이장자(五怡障子)》, 《비호장자(飛(虎)障子)》, 천유공(天遊齋)의 《수필 침병(手筆寢屏)》, 『가찰(家察)』, 『족보(族譜)』”

<sup>13</sup> 이춘제, 『西園小亭自敘』, 앞의 책, p. 933



도5 정선, 〈서원성정도〉, 1740년, 견본담채, 40×67.5cm, 정충기 소장(삼성미술관 리움 기탁보관, 崔完秀, 『謙齋 鄭澈 眞景山水畫』, 汎友社, 1993, p. 193.)



도6 정선, 〈서원조망도〉, 1740년, 견본담채, 40×67.5cm, 모암문고 소장(崔完秀, 『謙齋 鄭澈 眞景山水畫』, 汎友社, 1993, p. 195.)



도7 조현명, 「서원소정기」와 「서원소정시」, 1740년 6월, 지본묵서, 40×67.5cm, 모암문고 소장

비취지길 지극히 경계하며 만년의 고요한 유거지로서 보여지고자 하였다. 즉 이춘제는 《서원첩》을 제작하여 후손들에게 고요한 유거지에서 지인들과 한가롭게 이회를 하며 유거하는 ‘은거자’의 모습으로 재현되길 원하였다.

그러나 이춘제의 ‘서원’은 소론탕평론자들이 모임을 자주 가졌던 ‘정치적 결사의 공간’의 성격을 지녔다. 1740년 9월 서원에서는 이춘제의 아들이 관례를 하기 위해 연회를 열

었는데, 이춘제와 친분이 있던 조현명을 비롯한 30여 명의 소론이 참석하였다고 남하정(南夏正, 1678-1751)의 『동소만록(棟巢謾錄)』에 전한다. 연회의 음식물에 독극물이 들어 있어 서원아회에도 참여한 바 있는 황정과 송인명의 아들, 이춘제의 형수, 조카와 수십 명의 측근이 몰살당하였다. 이 사건을 남인이었던 남하정은 신임사회에 의해 화를 입은 노론이 다시 소론에게 복수를 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sup>14</sup> 즉 이춘제의 ‘서원’은 은퇴 후 한가로운 유거지로 이용하고자 하였던 표

<sup>14</sup> 『동소만록』은 남하정이 기호남인(畿湖南人)의 입장에서 서술한 당론서(黨論書)로 당시 남인계 인사들 사이에 정평이 나있었다. 『동소만록』에 대해서는 유봉학, 「18세기 南人 분열과 畿湖南人 學統의 성립: 『桐巢謾錄』을 중심으로」, 『한신 논문집』1(한신대학교, 1983), pp. 5-19 참조; 南夏正, 『棟巢謾錄』卷2(장서각 소장, MF35-9352), pp. 38a-39b, “今上庚申 參判李春躋冠子延客 今上庚申 參判李春躋冠子延客 宋寅明父子 以賓贊赴趙顯命以下諸少論與宴者無慮 數三十人宴 未央 太半中毒少年名士死者四人 黃晷寅明獨子春躋 寡嫂獨女 及男女死者十餘人 僉從僕隸死者數數十人 上聞之 驚動命逮膳夫 廚監 窮蹙監者 乃春躋 煎弟夏躋也 僕夫自刎死 夏躋果次諍問 嚼舌 不復言 僕夫妻 所供 有口設宴前數日 其夫負六十緡銅而來 莫知其所從來云 後終不得其端緒 世疑 三手餘毒波及於此而向者 李森 李光佐之死 似是一串云” 이글에 대한 번역과 문헌을 통한 고증은 김기희, 「정선과 이춘제 가문의 회화 수용 연구: 《서원첩》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1), pp. 36-42참고.

면적 목적 이면에 당쟁이 심화되어가던 시기 소론탕평론자들이 정치적인 모임을 가지기 위한 공간이었고, 이로 인해 노론에게 복수의 표적이 된 곳이었다.

이렇게 노론과 소론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던 시기에 정선이 노론의 당색을 가진 화가였다면, 소론탕평론자들의 정치적인 공간과 모임을 그려주는 이런 작화태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의문시된다. 정선은 1739년 봄에는 노론의 대표적 가문 안동 김문(安東 金門)에게 〈청풍계도〉를 그려주고, 여름에는 소론에게 《서원첩》을 그려주었다.<sup>15</sup> 이런 작화태도는 정선이 당대 인물들에게 특정한 정치적, 학문적 성향을 지닌 인물로서가 아닌, 노론, 소론, 남인을 구분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주었던 ‘화가’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어떤 당색을 가진 인물든지 그의 그림을 소장하길 원하여 주문이 폭주하였던 수응화가의 면모를 잘 드러내는 지점이라 생각된다.<sup>16</sup>

### Ⅲ. 정선과 이춘제 가문의 회화 수용

#### 1. 정선과 이춘제 가문의 서화취미와 소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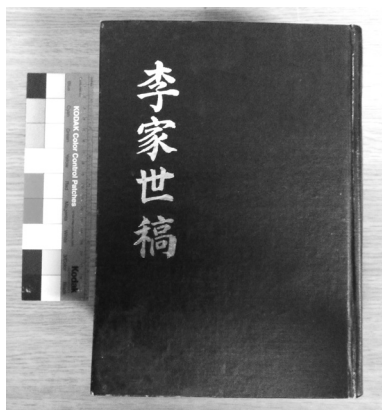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서원첩》은 이춘제가 2년 동안 정선에게 두 차례에 걸쳐 그림을 주문한 화첩이다. 바쁜 작화활동으로 인해 휘새필법을 이용한 수응화를 다량 제작하였던 정선이 세필을 사용해 공력이 많이 들어간 화첩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이춘제와 정선의 관계가 상당히 가까웠고, 이춘제가 정선에게 높은 대가를 주며 주문한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춘제와 정선과의 관련성은 안동 김문과 같은 여타 노론 성향의 가문의 인물들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sup>17</sup> 이는 이춘제의 문집이 발굴되지 않아 관련 기록을

<sup>15</sup> 〈청풍계도〉와 관련해서는 최완수, 앞의 책(2009b), pp. 14-22; 강관식, 「光州 鄭門과 壯洞 金門의 世交와 謙齋 鄭澈의 〈淸風溪〉」, 『미술사학보』26(미술사학연구회, 2006, 6), pp. 119-149; 조규희, 「별서도(別墅圖)에서 명승명소도(名勝名所圖)로: 정선(鄭澈)의 작품을 중심으로」, 『미술사와 시각문화』5(사회평론, 2006b), pp. 200-205 참고. 同, 「조선 후기 한양의 명승명소도와 국도(國都) 명승의 재인식」, 『한국 문화과 예술』, (숭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2012), pp. 147-194.

<sup>16</sup> 정선의 수응화(酬應畵)에 대한 논문은 장진성, 「정선과 수응화」,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향산 안휘준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1(사회평론, 2006), pp. 264-289; 同, 「정선의 그림 수요 대응 및 작화방식」, 『東岳美術史學』11(東岳美術史學會, 2010), pp. 221-236.

<sup>17</sup> 최완수, 앞의 책(2009b), pp. 17-73의 1장 출신 이념과 기반에서 내외가계, 학맥연원, 조선성리학으로 나눠 정선을 안동 김문으로 대표되는 노론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정선과 안동 김문과 관련지는 연구로는 강관식, 앞의 논문(2006), pp. 119-149.



도8 『이가세고』, 전주이씨 영해군파 소장 (김가희 사진)



도9 『완산이씨가승』, 전주이씨 영해군파 소장 (김가희 사진)

찾을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이다. 본고에 서는 이춘제의 후손 가문에서 비장(秘藏)되어 있던 『이가세고』의 발굴을 통해 이춘제의 후손 가문의 회화수장 활동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이가세고』에는 이춘제의 『중은재유고(中隱齋遺稿)』와 그의 셋째 아들 이창급(李昌汲, 1727-1803)의 『일와옹유고(一臥翁遺稿)』, 넷째 아들 이창임(李昌任, 1730-1775)의 『신천옹유고(信天翁遺稿)』가 수록되어 있어, 이춘제 가문이 소장하였던 수장품과 서화애호 취미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춘제는 <서원첩>을 제작한 이후에도 정선에게 계속 그림을 주문하며 친밀하게 교류하였다. 1740년 서원의 소정을 축조한 이후에도 저택을 축조하는 사업을 계속하였는데, 1745년 그는 그의 다섯 아들이 독서를 하기 위한 곳으로 ‘오이당(五怡堂)’을 지었다. 조현명이 오이당에 대해 지어준 제시에 “악하(嶽下)의 다섯 기쁨(五怡)으로 이름을 지었다”라고 밝히고 있어 이춘제의 다섯 기쁨 즉 다섯 아들을 위한 서재임을 알 수 있다.<sup>18</sup> 이후 이춘제는 정선에게 오이당에 대한 그림 즉 <오이당도(五怡堂圖)>를 그려달라고 주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선의 <오이당도>에 대한 이춘제, 이병연, 조현명의 제시가 현전하고 있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하지 않는 정선의 <오이당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준다.

필운산(弼雲山) 아래는 연기와 안개로 가려졌지만 경물(景物)인 은자(隱者)의 가옥은 의연(依然)하다. 시화(詩畫)는 당연히 지금 절보(絶寶)가 되었다. 끝내 꽃으로 팔아버리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sup>19</sup>

<sup>18</sup> 趙顯命, 『李台仲熙作小堂, 爲五子讀書所, 嶽下名以五怡, 有詩次之, 寄題』, 民族文化推進會編, 앞의 책, p. 135d, “五怡堂額孰名茲, 嶽下詩篇意可知, 木假中峯翁是已, 廬山列岫爾如之, 宮商聲出聯吟處, 斑斕衣輕洗舞時, 獨有殘生多涕淚, 荊花零落鑑亭池.”

<sup>19</sup> 李春躋, 『次槎川韻題五怡堂圖』, 앞의 책, p. 722, “弼雲山下鎖烟霞, 景物依然隱者家, 詩畫當今爲絶寶, 可能終免賣和花”; 趙顯命, 『次槎川韻, 題李仲熙五怡堂圖』, 民族文化推進會編, 앞의 책, p. 138c, “畫墨詩毫蔚綺霞, 好將雙絕侈君家, 行藏白傅曾辭秩, 經濟濂翁舊愛花.”

위의 제시는 이춘제가 이병연의 운에 맞춰 〈오이당도〉에 제시한 「차사천운제오이당도(次槎川韻題五怡堂圖)」이다. 이 제시에 따르면 이춘제의 오이당은 필운산 아래, 즉 인왕산(仁王山) 아래 위치한 곳임을 알 수 있다. 즉 〈오이당도〉는 인왕산을 배경으로 이춘제의 서재인 오이당이 그려져 있었던 그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정선이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인왕제색도〉와 같이 인왕산을 배경으로 한 그림을 자주 그렸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원에 정자와 정원을 축조한 후 그림을 부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서재를 축조하고 나서 이를 그림으로 그려 기념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춘제와 정선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기록으로는 1759년 정선이 별세하였을 때 이춘제가 지어준 만사(輓詞) 「정겸재선만」이 있다.

외물(外物)을 그리는 그림은 내부를 수신(修身)하는 공부이다. 세인(世人)들은 겉을 보고 안을 보지 못한다. 겸옹(謙翁, 정선)이 어떻게 고개지, 육탐미이겠는가. 겸옹의 배움은 능히 자득(自得)한 것이다. 깨달음(悟)과 신선함(鮮)은 사우(師友)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 겉모습은 춘풍추수(春風秋水)와 같은 맑은 조화와 도의 탐구를 겸하고 있다. 천인(天人)과 귀신(鬼神)의 유현(幽顯)을 매년 360일 매일 두루 노래하여 그 생각을 이미 전하였다. (그는) 매화나무 창문과 대나무 처마 속에서 홀로 깊이 연구하여 마화귀문(馬畫龜文, 그림과 고문자)을 많이 추연(推衍)하였다. 효자(孝子)는 문지거나 딱딱이 치는 비천한 일을 꺼려하지 않아 아래 고을로 내려가(下邑) 조개(皐臺)를 덮게 되었다. (아래 고을에서) 돌아와서는 폐호(閉戶) 백악산(白嶽山) 90 동(同)에서 선관(仙官)으로 알려졌다. 선관은 그 어찌 하늘이 소환(召還)하였는가. 자언(自言)하여 알았으나 이미 영거(靈車, 혼백을 실은 가마)에 곡(哭)을 하고 있다.

백수동문(白首同門) 이상서(李尙書)<sup>20</sup>(괄호 안은 필자)

위의 만사에서 이춘제는 정선의 죽음을 추도하며 그의 삶에 대해 집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선의 삶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그림’이었다. 외물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정선의 그림이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런 작화 태도는 누구에게 전수 받은 것이 아니라 정선 스스로 독학하여 자득한 것이라고 하였다. 만사의 상당 분량을 화가로서의 정선과 그의 그림에 대해 언급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춘제는 정선을 ‘그림을 잘 그리는 자’로 명백히

<sup>20</sup> 李春躋, 「鄭謙齋敬輓」, 앞의 책, p. 715, “畫以寫外物學是修身內 世人見外不見內 謙翁豈是顧陸輩 謙翁之學能自得 悟鮮不須師友誨 貌 兼(兼)春風秋水之和 潔道探 天人鬼神之幽顯 年年三百六十日 日日遍誦曾思傳 梅窓竹 簷(簷)獨落(潛)究 馬畫龜文多推衍 孝子不嫌關柵卑 有時皂蓋下邑之 歸來閉戶白岳山 九十同知如仙官 仙官其奈天召還 自言知己哭靈車 白首同門 李尙書”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춘제와 정선의 교우는 그의 아들 대까지도 이어졌는데 먼저 이춘제의 둘째 아들이었던 이창좌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창좌의 자(字)는 성보(聖輔)였는데 중년 이후에는 성사(聖師)로 바뀌었다. 그는 당숙(堂叔)인 이성제(李誠濟, 1672~1736)의 계자(系子)로 가게 되었는데 창의동(彰義洞)에서 28세의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 요절하였다.<sup>21</sup> 그의 문집은 남아 있지 않지만 그의 친동생이었던 이창급의 문집에 그와 정선의 교류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어 주목할 만하다.

(공은) 말년에 그림을 사랑하여 자주 정선에게 가서 산수도(山水圖)를 논하였다. 공은 단청가(丹青家)에 대해 비록 소매(素昧)하였으나 (그가 논한) 그 말씀은 신비롭고 생생하였으며 옛 시구(詩句)가 스며들어 있었다. 분경(分景)을 청해 받았는데 힘써주어 운치(韻致)가 빛이 났다. 임신년(1752) 여름 공의 병이 오래되어 겸옹(謙翁)이 이를 위해 <삼각창취(三角蒼翠)> 한 본을 보냈는데 그것을 진귀한 옥처럼 여겼다. 공이 자신을 깊이 알아주는 것에 감동하여 발(跋)에 적어 표현하고자 하였는데 그 끝을 아직 마치지 못하였다.<sup>22</sup>

위의 이창급의 기록에서 이창좌와 정선의 교류에 관한 정보를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이창좌가 병에 걸려 죽었던 1752년 이전 시기 어느 때에 정선에게 찾아가 산수도를 논하였다는 것이다. 이창좌는 단청가(丹青家), 즉 그림 그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래 잘 알지 못하였으나 정선과 격조 높은 논의를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또 1752년 이창좌가 병을 심하게 앓고 있을 때 정선은 이창좌를 위해 <삼각창취도(三角蒼翠圖)>를 그려 보내주었고 이에 감동한 이창좌는 발을 쓰려고 하였으나 그 해 겨울 끝내 죽게 되서 발을 완성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정선에게 <분경도(分景圖)>를 그려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록을 참고할 만하다.

이 그림은 이름을 짓길 <<수서가장(水西家藏)>>이다. 모두 집안의 자제가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거사(居士, 이창좌)의 전술(傳述)한 것이 없어 슬퍼 거사의 요사(遼事)를 두루 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거사의 일고(逸稿)는 친당제우(親黨濟友)들에게 속해 있는 문자(文字)들을 모은 것이다. (…중략…) 단지 후생(後生)의 자제(子弟)들이 우리의 거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데 즉 이것이 심해지는 것이 방자해져 가히 슬퍼서이다. 나는 이에 뜻이 있어 임신년(1752년) 겨울

<sup>21</sup> 全州李氏寧海君譜編, 앞의 책, p. 35; 李昌伋, 『仲氏水西公行蹟』, 『一畝翁遺稿』, p. 1309 참고.

<sup>22</sup> 李昌伋, 『仲氏水西公行蹟』, 앞의 책, p. 1316, “末年愛畫每就鄭謙齋論山水圖, 公於丹青家雖素昧, 而其言便有神鮮或演古詩句, 分景請受務光韻致, 壬申夏公淹疾謙翁爲之作三角蒼翠一本以送, 過乃絕瑋也, 公感其深知, 欲著跋識, 其端未就.”

에 시작하여 정축년(1757년) 봄까지 하였다. 그리고 선사(繕寫)한 후에 고를 마친 뒤 10 권으로 나눠 집에 수장하였다. 그러는 동안 이미 겸재 노인에게도 빌어서 거사의 유거(幽居)를 두 폭의 그림으로 하여 권(卷)의 상·하(上·下)로 편찬하였다. 거사의 행적도 구해 넣어 도움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자제들은 만약에 그 수장이 유실됨을 삼가지 않는다면 즉 아버지 같은 숙부(叔父, 이창급)에게 큰 죄를 받게 될 것이다. 마치며 덮었노라. 이(怡) 중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글을 남기다. 바로 덮으며 글을 남기다.<sup>23</sup> (밑줄 및 괄호 안은 필자)

정선에게 그려 받은〈분경도〉는 아마 이창급이 언급한 《수서가장》 내 이창좌의 유거지 그림 두 폭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창좌의 유거지를 그린 〈분경도〉는 이창좌 사후에 1752년에서 1757년 사이에 이창급에 의해서 제작된 것이다. 자신의 형이었던 이창좌가 28세의 젊은 나이로 창의동에서 죽었는데 그의 후손들이 이창좌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유고를 모으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정선에게 이창좌의 유거지를 그려달라고 주문하였는데 권의 '상·하' 두 폭으로 제작하였다.

이춘제 가문의 인물 중 서화 취미가 가장 깊었던 인물은 이창급이다. 이창급은 이춘제의 세 번째 아들로 자는 성용(聖庸), 호는 일와옹(一畝翁)이다. 『이가세고』에는 이창급의 문집인 『일와옹유고』가 수록되어 있어 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준다. 그는 9세 때였던 1735년 외조부(外祖父) 조원명(趙遠命, 1675-1749)의 가르침을 받아, 경(經)·사(史)·시(詩)에 두루 통달하였다고 한다. 1759년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한 후 1761년 왕세손(훗날 정조)의 입학집사(入學執事)로 선발되었다. 1771년에는 별시 문과병과(文科兵科)에 급제하였고 승정원(承政院) 부승지, 평안도 정주목사(定州牧使)를 역임하였다.<sup>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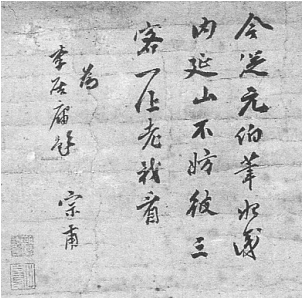
이창급은 먼저 정선의 영남과 관련된 작품을 열람한 기록이 보인다. 도산서원(陶山書院), 부석사(浮石寺)를 거쳐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유람하는 중에 정선의 〈백운동도〉를 감상했던

<sup>23</sup> 전문은 李昌伋, 「水西家藏跋」, 앞의 책, p. 1544, “此畫成名之曰, 水西家藏, 蓋爲家子弟留覽也. 余悼居士之無傳述, 居士遼事訖遍求, 居士逸稿弁于卷親黨隣友之屬以文字者, 其目八而以次附焉載居士志行, 則曰狀(狀)也. 叙居士言貌曰傳也. 錄系派(瘞)于居士之壙, 則謂之誌銘也. 標生卒暨于居士之墓, 則謂之碑記也. 酌觴而哭居士者有祭文執紼, 而送居士者有輓詞如誄章哀辭亦皆爲居士, 而追(追)傷之作也. 嗚呼, 居士二十八年志尙, 無非耻銜名而樂保眞, 則余之爲此, 非敢闢揚, 而但使後生子第不知有吾居士, 則此爲可悼之甚者肆, 余有志於斯始于壬申冬後至丁丑春, 而繕寫之後, 告完分爲十卷藏于家, 既又乞謙齋老人摹居士幽居間行二幅圖編于卷之上下 求(求)居士之跡者亦或不爲無助(助)也. 子弟輩若不謹其藏致有闕失, 則是重得罪於父若叔也. 蒙乎威之哉. 怡中子揮涕, 而書留與蒙正.” 참고.

<sup>24</sup> 全州李氏寧海君譜 編, 『全州李氏寧海君派譜』上(永慕齋譜所, 1992), p. 1451.



도 10-1 정선, <내연산삼용추도>, 1734년,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三星美術文化財團編, 『湖巖 美術館 名品圖錄』, 三星美術文化財團, 1984, 도28.)



도 10-2 <내연산삼용추도> 상단의 조영석의 제화시(三星美術文化財團編, 『湖巖 美術館 名品圖錄』, 三星美術文化財團, 1984, 도28.)

것을 회상하며 기록을 남겼다.<sup>25</sup> 또 내연산(內延山)의 상중하 삼용추(三龍湫)가 있는 큰 폭포를 그린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내연산삼용추도(內延山三龍湫圖)>(도 10-1)에는 이창급을 위해 조영석이 써준 제발이 있다.(도 10-2)<sup>26</sup>

이창급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가문 소장 의 서적과 서화를 정리하여 목록으로 남겼다는 점이다. 「구장경적」이라는 제목으로 그는 가문 소장 의 서적과 서화첩을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sup>27</sup>

「구장경적(舊莊經籍)」

경서(經書) 1질, 사기(史記)를 편집본, 명사강목(明史綱目), 주서(朱書), 삼소문(三蘇文), 《만별첩(輓別帖)》, 《영설첩(詠雪帖)》, 《서원첩(西園帖)》, 《오이장자(五怡障子)》, 《비호장자(飛虎障子)》, 천유공(天遊齋)<sup>28</sup>의 《수필 침병(手筆寢屏)》, (이창급이 저술 중인) 『가찰(家察)』, 『족보(族譜)』

각각의 서적과 서화를 소장하게 된 경로를 밝히며 빌린

25 李昌伋, 『順興異蹟記』, 앞의 책, pp. 1285-1286, “余每蹈浮石僿飛花事心頗爲異, 且見謙齋翁所畫白雲洞圖亦擬一賞者久之今, 自陶山而歸其路中有, 所謂靑巖亭者故判尹權機別業(…중략…)白雲洞壑之遼遠清涼其石磷磷也, 其松落落也, 一條活水環院而漣漪者, 一與家莊謙翁圖相髣髴南來也, 恨未入于裝而展較, 今歸可以評 其得失然謙翁已作故人是尤恨也, 癸未三月初三日嶺左歸客記.”

26 자세한 내용은 김가희, 앞의 논문, pp. 64-65 참고.

27 이창급은 후손에게 전하며 조심해야 하는 10가지 「유계십칙(遺誡十則)」으로 염관(儼棺), 사빈(弔殯), 인우(鞠虞), 제빈(祭貧), 묘조(墓兆), 사당(祠堂), 유고시문(遺稿詩文), 구장경적(舊莊經籍), 서화(書畫), 곡용(哭用)을 들었다. 李昌伋, 『舊莊經籍』, 앞의 책, pp. 1653-1659 참고.

28 천유재공은 이춘제의 부친이자 이창급의 조부였던 이언경(李彦經, 1653-1710)이다. 그의 자는 사상(士常), 호는 천유재(天遊齋)이다. 全州李氏大同宗約院編, 앞의 책, p. 1449 참고.

자는 꼭 반납해야하며 후손들이 꼭 지켜서 소장해야한다고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다.<sup>29</sup> 그리고 이 글을 쓸 때 그는 『가찰』과 『죽보』를 집필 중이었다. 그는 수집한 서적의 목록을 만들어 정리하여 가문 내에 소장하며 후손들에게 계속하여 유전(遺傳)될 것을 소망하였다. 그는 서적뿐만 아니라 「유계십칙」의 다음 항목에 「서화」라는 제목으로 소장하고 있는 서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서화(書畵)」

〈산거도(山居圖)〉 뒷면에 관욕(官欲)을 쓰게 하여 좌목(座目), 사전(謝箋), 관지(館誌)로 분서(分書)하였다. 처음부터 시작하여 돌아가며 쓴 모든 초서들이 종이 상자 속에 들어있다. 마침내 너희들이 가지게 될 수 있어 즉 다행이다. 선조(先朝)의 계병(契屏)은 반드시 더럽히지 말고 옛 것 대우를 하여라.

□源□의 <<진채 팔첩(眞彩 八帖)>> 역시 겸옹(謙翁, 정선)의 절필(絶筆)이다. 그리고 나의 성명(姓名)이 우연히 거듭 널리 신광천광(申廣川光)이 모든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빌려서 아직 옮기지 않았다.

<<남북산 장자(南北山障子)>> 두 본(本)은 비단 겸옹의 글뿐만 아니라 왼쪽 사천(槎川, 이병연)의 발문(跋文)에 내 이름이 있다. 내가 만든 것인데 전가지보(傳家之寶)이니라. 이에 벗들이 오히려 돌려보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어찌 그들의 뜻대로 되게 책임을 내려놓겠는가.<sup>30</sup> (괄호 안은 필자)

「서화」에서 이창급이 언급한 세 점의 작품은 〈산거도 계병〉, <<진채 팔첩>>과 <<남북산 장자>>이다. 〈산거도 계병〉은 계회를 기념하여 산거도를 그린 기념 병풍이라 생각된다. 정선은 〈북원수회도(北園壽會圖)〉(1716년)와 〈의금부계회도(義禁府契會圖)〉(1729년), 〈선의왕후부묘도감계회도(宣懿王后附廟圖鑑契會圖)〉 등 계회도를 빈번하게 제작하였기 때문에, 이 〈산거도계병〉 역시 정선의 작품일 가능성은 아주 높다.<sup>31</sup> 다음으로 <<진채 팔첩>>이라는 화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정선의 작품이라고 하였다. 진채 즉 청록의 안료로 그려진 화첩으로 추정되는데 화제(畫題)에 대한 정보가 없어 어떤 내용을 그린 화첩인지 알 수 없다. 마지막으로 열거된 작품은 <<남북산 장자>>인데 이는 〈백악도(白嶽圖)〉와 〈남산도(南山圖)〉두 폭의 그림이 장첩된 장자이다.

<sup>29</sup> 李昌伋, 『舊莊經籍』, 앞의 책, p. 1658, “余身後汝輩宜益加愛惜之”, “得者必謀還推”, “此皆不忍闕失者”

<sup>30</sup> 李昌伋, 『書畵』, 위의 책, p. 1658, “山居圖後面使寫官欲分書座目謝箋館誌矣。既始旋(寢)諸草在紙匣中, 汝輩卒能成就, 則幸, 先朝契屏不宜褻待故也。/ □源□眞彩八帖亦謙翁絶筆, 而識余姓名偶爲申廣川光綱所借, 而未推。/ 南北山障子兩本非但謙翁書, 余姓名於左方槎川跋文專爲, 余作便是傳家之寶, 安友輩尙不思還, 豈可任其終作他胸耶。”(『이가세고』는 전주 이씨 영해군파 내에서 영인한 책으로 인쇄의 질이 좋지 않아 □에 해당하는 글자를 판독하기가 어려웠다.)

<sup>31</sup> 〈육상묘도〉로 알려진 〈선의왕후부묘도감계회도〉에 대해서는 김가희, 앞의 논문, pp. 82. 주 161 참고.

이 병풍 역시 정선의 작품인데 이병연의 발문까지 첨부되어 있어 이창급이 애장(愛藏)하였던 작품이다. 이창급은 이 두 그림에 대해 제문도 남겼다.

「제백악도(題白嶽圖)」

지난 해 봄이 시작할 무렵 장려(杖藜, 지팡이)를 짚고 한번 올랐는데, 다리의 병이 있어 약해진 후에는 다시 등산하지 못하였다. 마침내 장자(障子)로 만들어 병중(病中) 와유(臥遊)가 되었다. 거듭 요점만 간략하게 진경(眞景)을 피복(披拂)하였다. 하나의 풀, 하나의 나무와 숲이 자연스러운 안목(眼目)이다. 겸옹(謙翁)은 나처럼 다리가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다.<sup>32</sup>

「제남산도(題南山圖)」

20년 전에 종남산(終南山)을 걸어 올라간 것은 이전에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한번 다녀온 것을 그림으로 완성하였다. 즉 만고창취(滿高蒼翠)이다. 나의 관령(管領)으로 들어가는 중에 있는 소나무와 돌이 가파른 암벽이 모두 역력(歷歷)히 기억이 또렷하다. 가히 기어오르는 것이 장평자(張衡, 78-139)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말하기를 하필 멀리 감으로서 지칠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의 사천(槎川, 이병연)의 말 또한 얻은 것이다.<sup>33</sup>

제발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창급은 정선에게 〈백악도〉와 〈남산도〉를 주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제발에 백악산과 남산을 직접 다녀온 경험을 언급하고 있지만 정선의 그림은 그의 경험을 반영한 그림이 아니었다. 이창급은 남산에 20년 전에 다녀왔고, 백악산에는 그림에 제(題)하기 1년 전에 다녀왔다. 그는 과거의 경험을 그림과 관련지어 설명하고자 하였지만 정선의 작품은 그의 유람을 그린 것이 아니라 단지 자주 그리던 화제를 주문을 통해 그려주었을 뿐이다.

이창급의 서화를 애호하고 수집하는 취미는 상당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버지 이춘제의 서화에 대한 관심은 다섯 아들 중 이창급에게 이어졌는데 다른 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수하였고 관련이 높았던 것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그는 아버지 이춘제를 뛰어넘어 정선과 회화를 통해 빈번한 교류를 하였음을 문집의 기록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문집과 현전하는 이춘제 가문의 소장품의 목록을 재구성해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이춘제 가문은 상당한 양의 정선 그림을 소장하고 있었다. 다른 가문들에 비해 결코

<sup>32</sup> 李昌伋, 「題白嶽圖」, 앞의 책, p. 1532, “去歲春始杖藜一陟, 而有軟脚病後不復作矣, 遂爲障子臥遊之病中, 披拂如(復)領略眞景一草一木森然眼目, 謙翁幸不病我脚也.”

<sup>33</sup> 李昌伋, 「題南山圖」, 위의 책, p. 1533, “二十年終南山前, 步履未嘗一到畫成, 則滿高蒼翠, 入我管領中松石巉(巖)處皆歷歷, 若可攀援張平子有, 曰何必歷遠以助勞, 今槎川語又得之矣”

수량이 뒤지지 않아 이춘제 가문 역시 정선의 중요한 주문자이자 후원자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2 이춘제 가문의 정선 작품 소장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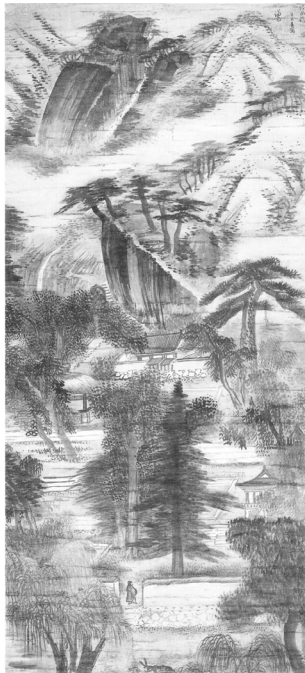
| 작품제목      |         | 형태   | 소장 / 문집기록                                | 참고사항  |
|-----------|---------|------|--|---|
| 《西園帖》     | 〈玉洞步岡圖〉 | 絹本淡彩 | 삼성미술관 리움                                 | 정선의 작품,<br>1739년-1740년 제작<br>본고 II장 참고                |
|           | 〈風溪臨流圖〉 |      | 개인소장                                     |   |
|           | 〈西園小亭圖〉 |      | 개인소장                                     |   |
|           | 〈西園眺望圖〉 |      | 모암문고                                     |   |
| 《水西家藏》    |         | 畫帖   | 李昌伋, 『水西家藏跋』, 『跋』, 『臥翁遺稿』, p. 1544       | 1752년-1757년 사이 이창좌의 유거지 그림을 동생 이창급이 정선에게 주문하여 상/하로 수록 |
| 〈三角蒼翠〉    |         | 未詳   | 李昌伋, 『仲氏水西公行蹟』, 『遺事』, 『臥翁遺稿』, p. 1316    | 1752년 이창좌가 병중에 있을 때 정선이 그려 보냄                         |
| 〈白雲洞圖〉    |         | 未詳   | 李昌伋, 『順興異蹟記』, 『臥翁遺稿』, p. 1285            | 이창급이 도산서원의 풍경을 보고 정선의 그림 환기                           |
| 〈內延山三龍湫圖〉 |         | 軸    | 삼성미술관 리움                                 | 이창급에게 써준 조영석의 제발이 첨부되어 있는 정선의 작품.                     |
| 〈白巖圖〉     | 屏風      |      | 李昌伋, 『題白巖圖』, 『題』, 『臥翁遺稿』, p. 1532        | 두 점의 그림이 병풍으로 장황되어 있는 정선의 작품                          |
| 〈南山圖〉     |         |      | 李昌伋, 『題南山圖』, 『題』, 『臥翁遺稿』, p. 1533        |   |
| 〈五怡堂圖〉    |         | 屏風   | 李昌伋, 『感書五怡堂障子後』, 『題』, 『臥翁遺稿』, p. 1538    | 이춘제가 다섯 아들을 위해 지은 오이당의 그린 정선의 작품                      |
| 《眞彩八帖》    |         | 帖    | 李昌伋, 『書畫』, 『雜錄』, 『遺誠十則』, 『臥翁遺稿』, p. 1658 | 정선의 절필. 자세한 화제 언급되어 있지 않음                             |
| 《山居圖契屏》   |         | 屏風   | 李昌伋, 『書畫』, 『雜錄』, 『遺誠十則』, 『臥翁遺稿』, p. 1658 | 계회도 형식의 작품  |

## 2. 이춘제 가문의 소장품과 정선의 한양진경

앞의 이춘제 가문의 서화 소장품을 살펴보면 작가 미상의 《산거도 계병》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정선의 작품이고, 정선의 작품들 중 대다수가 한양의 산과 저택을 그린 ‘한양진경’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시 말해 이춘제 가문 소장품은 정선의 한양진경 작품에 집중되어 있다.<sup>34</sup>

<sup>34</sup> 한양실경산수화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이순미, 『조선후기 정선화파의 한양실경산수화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협동과정 미술사학 전공 박사학위논문, 2012).

《서원첩》의 〈옥동척강도〉와 〈풍계임류도〉처럼 한양 주변의 산을 유람하고 그 경관을 그림으로 그려 소유하고자 하였던 가문의 취미는 아들들에게까지도 이어졌다. 1752년 위독한 이창좌를 위해 삼각산을 그려준 〈삼각창취도〉, 한양의 북쪽과 남쪽 산을 그린 〈백악도〉와 〈남산도〉 역시 한양 주변의 경관을 그린 작품이었다. 다시 말해 이춘제 가문에서는 한양을 둘러싸고 있어 항상 볼 수 있는 주변의 삼각산, 백악산, 인왕산, 남산의 그림을 모두 소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원첩》에서 서원의 정자를 새로 축조한 뒤 〈서원소정도〉와 〈서원조망도〉를 주문했던 것과 유사하게, 이춘제 가문은 자신들의 소유지에 저택을 새로 축조하면 정선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주문하여 소유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오이당도〉도 인왕산 자락 아래 이춘제가 다섯 아들을 위해 지은 서재를 그린 작품이었고, 한양의 창의동에 있는 이창좌의 유거지를 상, 하로 나누어 그린 〈분경도〉도 소장하고 있었다.



도 11 정선, 〈청풍계도〉, 1739년, 견본담채, 153.6×59.0cm, 간송미술관 소장(崔完秀, 『謙齋 鄭澈 眞景山水畫』, 汎友社, 1993, p. 153.)

즉 이춘제 가문의 소장품은 한양을 둘러싼 주변 산을 그린 작품들과 그곳에 조성된 자신의 소유지, 저택을 그린 작품 즉 ‘한양진경’이 대부분이다. 이 시기 정선의 대표적인 화제는 금강산도이고, 수응화 형태로 제작되어 널리 보급이 되고 있던 시점인데 이춘제 가문의 소장품 목록에는 금강산 그림이 단 한 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문제 의식과 궤를 같이 한다. 정선은 1710년대부터 《신묘년풍악도첩》, 《해악전신첩》 등 금강산을 그리기 시작하여 관동 지역, 영남 지역, 단양, 영춘, 영월, 청풍의 사군(四郡)을 그렸다. 이렇게 전국 곳곳의 명승지의 풍경을 화폭에 담았는데 왜 정작 자신의 세거지(世居地)였던 한양의 풍경은 70대 이후인 만년이 되어서야 그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기존 연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이다.<sup>35</sup>

1739년 경을 기점으로 정선은 소론 이춘제를 위해 《서원첩》을 제작해주고, 노론 안동 김씨 가문을 위해 〈청풍계도〉를 그려주었다. 이 시기부터 정선은 한양진경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하여, 〈청풍계도(淸風溪圖)〉(1739)(도 11), 《경교명승

<sup>35</sup> 조규희, 앞의 논문(2006a), pp. 272-291. 이 논문에서는 왜 만년에 정선이 경교의 명승명소도를 그리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경교사족들이 17세기를 전후로 하여 선조 왕공사대부 소유의 한강변 별서를 자신들의 별서로 삼았던 점을 《경교명승첩》과 연결 지어 논의하였다.

첩(京郊名勝帖)》(1740-1741), 〈백악산도〉, 〈인왕제색도〉(1751), 《장동팔경첩(壯洞八景帖)》과 같은 한양진경 관련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제작한다.

이는 이춘제 가문과 같은 경화세족들의 유람과 유거에 대한 인식이 이 시기를 경계로 변화한 결과의 산물이라 생각된다. 경화세족은 꼭 금강산이나 영남의 명산을 가지 않더라도 도성의 어디에서나 보이는 산을 유람의 대상으로 인식하였고, 도성의 인구가 밀집된 뻘뻘한 주거공간에서도 유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경화세족들이 기본적으로 사대부의 명분을 잃고 싶진 않지만 문화와 정치의 중심인 한양을 떠나기 싫어하며 한양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경화세족들의 인식이 정선이라는 ‘지형적 그림(topographical painting)’에 능한 화가와 만나 한양진경으로 표현된 것이다. 경화세족들의 수요의 증가가 만년에 정선이 한양진경을 집중적으로 창작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화가가 그림을 제작할 때 홀로 무에서 유를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자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화제를 탄생시킨다.

이춘제 가문은 정선의 중요한 주문자 가문이었고, 그 중에서도 정선의 한양진경이라는 화제를 선호하는 가문의 취향이 뚜렷하였다. 기존의 정선 연구에서는 노론 주문자와의 회화 수용 관계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론 이춘제 가문의 서화 취미와 정선에게 끼친 영향은 과소평가 되어 왔다. 분명 노론 당파의 안동 김씨 가문도 정선 그림의 주된 주문자이자, 정선의 한양진경의 주된 수요자였다. 그렇지만 이춘제 가문과 같은 소론 가문 역시 상당한 양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으며, 이 작품들은 ‘한양진경’이라는 뚜렷한 화제에 대한 선호가 보인다. 정선이 자신의 생애 말년에서야 자신이 평생 세거한 한양의 풍경을 그리게 된 데에는 안동 김문뿐만 아니라 이춘제 가문과 같은 경화세족의 새로운 인식 변화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 IV. 맺음말

《서원첩》이 제작되던 시점은 이춘제 가문의 최고 전성기였다. 경화세족으로서의 당대 최고의 화가와 친밀한 교류를 하며 서화를 애호하는 등 당당한 면모를 자랑하던 이춘제 가문은 1776년 아들 이창임의 역모 사건으로 인해 가문의 불행이 시작된다. 이창임은 1년 전인 1775년에 병사(病死)하였는데, 그의 사후 이창임이 환관(宦官) 김수현(金壽賢) 등과 결탁하여 역모를 꾀하였다는 죄목으로 대사간직을 삭탈당하게 된다. 형인 이창급 또한 정주목사직을 삭탈 당하게

되는 불행을 겪는다.<sup>36</sup> 전주 이씨 집안에서는 이를 홍국영(洪國榮, 1748-1781), 정원시(鄭元始, 1735-?) 등의 모함으로 보고 원통해한다. 이런 화를 겪고 나서 이창급을 비롯한 전주이씨 가문은 4년 동안 파주 객점과 과천 두릉의 오두막 등을 떠돌며 생활하였다.<sup>37</sup> 이러한 과정에서 가문 소장 회화 작품들은 산실되었고, 문집은 사장되었다. 이 때문에 전주 이씨 영해군파에서는 가문의 문집 『이가세고』를 외부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근래까지도 꺼려왔던 것이다.

이는 안동 김씨 가문이 19세기까지 세도가로서 권력을 장악하며 승승장구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가문이 몰락하여 현재 우리에게 전하는 작품과 기록이 적은 것이지, 정선이 생존했던 당시에 이춘제 가문의 영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소론의 당색을 지녔던 이춘제 가문은 한양의 주변 경관과 자신의 소유지를 정선에게 그려달라고 주문하여 많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정선의 한양진경 작품의 주요 주문 가문이었다. 또 이춘제 가문은 부자에 걸쳐 정선과 회화를 통해 많은 교류를 나누었던 문화적 영향력이 있었던 가문이었다. 그리고 정선은 노론뿐만 아니라 소론의 그림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였으며, 당색을 초월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소장하고 싶어 하였던 18세기의 인기 있는 화가였다.

**\*주제어(Key Words)** 정선(鄭敼, Jeong Seon), 이춘제(李春躋, Li Chun-je), 이창좌(李昌佐), 이창급(李昌級, Li Chang-geup), 서원첩(西園帖, Seowoncheop (Album of Western Garden)), 한양진경(漢陽眞景, Hanyang Jingyeong (True-View Landscape Painting of Hanyang)), 경화세족(京華世族, Gyeonghwasejok)

■ 투고일 2013년 9월 24일 | 심사개시일 2013년 10월 11일 | 심사완료일 2013년 11월 1일 ■

<sup>36</sup> 全州李氏寧海君譜編, 위의 책, p. 1451.; 『正租實錄』, 卷1, 정조 즉위년(1776) 4월 26일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정조실록』1(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1), pp. 79-80의 「정원시 등이 이창급의 관작 추탈과 형제를 사관에서 삭제하기를 청하니 윤택하다」기사 참고.

<sup>37</sup> 1776년 이창급의 화(禍)에 관해서는 한길연, 『조선후기 대하소설의 다층적 세계』(소명출판, 2009), pp. 302-334 참고.

## 참고문헌

### 1. 原典

『李家世稿』, 全州李氏寧海君派所藏.

『完山李氏家乘』, 全州李氏寧海君派所藏.

『우리집 내력: 家乘 解說』, 全州李氏寧海君派所藏.

南夏正, 『棟巢謾錄』, 장서각 소장, MF35-9352.

민족문화추진회 편, 『고전국역총서40: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1, 민족문화추진회, 1969.

徐宗瑩, 『謝吾齋遺稿』, 규장각 소장, 圭3428 884 00, M/F81-103-407-A.

全州李氏寧海君譜 編, 『全州李氏寧海君派譜』上, 永慕齋譜所, 1992.

\_\_\_\_\_, 『全州李氏寧海君派譜』中, 全州李氏寧海君譜, 1992.

\_\_\_\_\_, 『全州李氏寧海君派譜』下, 全州李氏寧海君譜, 1992.

\_\_\_\_\_, 『全州李氏 1千3年史 全州李氏大觀』, 全州李氏大同宗約院, 1999.

趙顯命, 『歸鹿集』, 民族文化推進黨 編,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212, 民族文化推進黨, 199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정조실록』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1.

### 2. 單行本

겸재정선기념관 편, 『겸재 정선: 겸재정선기념관 개관기념 학술도록』, 겸재정선기념관, 2009.

국립중앙박물관 편, 『겸재 정선: 붓으로 펼친 천지조화』, 통천문화사, 2009.

최완수, 『겸재 정선 진경산수화』, 범우사, 1993.

\_\_\_\_\_, 『겸재의 한양진경』, 동아일보사, 2004.

\_\_\_\_\_, 『겸재 정선』1, 현암사, 2009a.

\_\_\_\_\_, 『겸재 정선』2, 현암사, 2009b.

\_\_\_\_\_, 『겸재 정선』3, 현암사, 2009c.

한길연, 『조선후기 대하소설의 다층적 세계』, 소명출판, 2009.

항산 안휘준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항산 안휘준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1, 사회평론, 2006.

### 3. 論文

강관식, 「光州 鄭門과 壯洞 金門의 世交와 謙齋 鄭澈의 〈淸風溪〉」, 『미술사학보』26, 미술사학연구회, 2006, pp. 119-149.

- \_\_\_\_\_, 「謙齋 鄭澈의 天文學 兼教授 出任와 〈金剛全圖〉의 天文易學的 解釋」, 『미술사학보』27, 미술사학연구회, 2006, pp. 137-194.
- \_\_\_\_\_, 「겸재 정선의 任宦 경력과 애환」, 『미술사학보』29, 미술사학연구회, 2007, pp. 137-194.
- 姜明官, 「朝鮮後期 京華世族과 古董書畫 趣味」, 『부산한문학회』12, 부산한문학회, 1998, pp. 5-38.
- 박은순, 「사의(寫意)와 진경(眞境)의 경계를 넘어서: 謙齋 鄭澈 新考」, 『겸재정선: 겸재정선기념관 개관기념 학술도록』, 겸재정선기념관, 2009, pp. 204-235.
- \_\_\_\_\_, 「겸재(謙齋) 정선(鄭澈)과 소론계(少論系) 문인들의 후원과 교류(1)」, 『溫知論叢』29, 온지학회, 2011, pp. 397-441.
- 유봉하, 「18세기 南人 분열과 畿湖南人 學統의 성립: 『桐巢謏錄』을 중심으로」, 『한신논문집』1, 한신대학교, 1983, pp. 5-19.
- 이순미, 「조선후기 정선화파의 한양실경산수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협동과정 미술사학 전공 박사학위논문, 2012.
- 장진성, 「정선과 수응화」,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향산 안휘준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1, 사회평론, 2006, pp. 264-289.
- \_\_\_\_\_, 「정선의 그림 수오 대응 및 작화방식」, 『東岳美術史學』11, 東岳美術史學會, 2010, pp. 221-236.
- 조규희, 「17·18세기의 서울을 배경으로 한 文會圖」, 『서울학연구』16,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1, pp. 45-81.
- \_\_\_\_\_, 「조선시대 별서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a.
- \_\_\_\_\_, 「별서도(別墅圖)에서 명승명소도(名勝名所圖)로: 정선(鄭澈)의 작품을 중심으로」, 『미술사와 시각문화』5, 사회평론, 2006b, pp. 192-223.
- \_\_\_\_\_, 「家園眺望圖와 조선후기 借景에 대한 인식」, 『미술사학연구』257, 한국미술사학회, 2008, pp. 105-139.
- \_\_\_\_\_, 「조선후기 한양의 명승명소도와 국도(國都) 명승의 재인식」, 『한국 문화과 예술』, (숭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2012).
- 최완수, 「겸재진경산수화고」, 『간송문화』35, 한국민족미술연구소, 1988, pp. 56-63.
- \_\_\_\_\_, 「겸재진경산수화고」, 『간송문화』45, 한국민족미술연구소, 1993, pp. 49-50.
- \_\_\_\_\_, 「겸재 정선」, 『겸재 정선의 독서여가도를 통해본 조선후기 선비들의 멋스러운 삶』,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0, pp. 9-41.
- 홍선표, 「정선의 작가적 생애」, 『겸재정선: 겸재정선기념관 개관기념 학술도록』, 겸재정선기념관, 2009, pp. 192-203.
- \_\_\_\_\_, 「정선 인왕제색도: 조선 산수화가 개벽, 만년의 기념비적 조화경」, 『한국의 미, 최고의 예술품을 찾아서』1, 돌베개, 2007.

#### 4. 圖錄

國立中央博物館, 『國立中央博物館 韓國書畫遺物圖錄』14, 國立中央博物館, 2006.

국립춘천박물관, 『우리 땅 우리의 진경』, 통천문화사, 2002.

金元龍等編, 『韓國의 美 1: 謙齋 鄭澈』, 中央日報社, 1977.

韓國民族美術研究所, 『潤松文華: 繪畫47 謙齋逝去二百五十周年紀念 謙齋畫派』76, 韓國民族美術研究所, 2009.

#### 5. 辭典

羅竹風編, 『漢語大詞典』1-13, 漢語大詞典出版社, 1990.

檀國大學校附設 東洋學研究所編, 『漢韓大辭典』1-15, 檀國大學校出版部, 2007.

諸橋轍次, 『大漢和辭典』1-13, 大修館書店, 1968.

## 국문초록

정선(鄭敼, 1676-1759)은 1739년 <옥동척강도(玉洞陟崗圖)>, <풍계임류도(風溪臨流圖)>와 1740년 <서원소정도(西園小亭圖)>, <서원조망도(西園眺望圖)>를 제작하였다. 현재는 각기 다른 곳에 소장되어 있는 이 4점의 작품은 18세기 경화세족(京華世族)이었던 이춘제(李春躋, 1692-1761)를 위해 제작된 것이다. 이춘제는 1739년 여름 조현명(趙顯命, 1691-1752), 황정(黃晷, 1689-1752), 조영국(趙榮國, 1698-1760), 송익보(宋翼輔, 1689-1747), 서종벽(徐宗璧, 1696-1751), 심성진(沈星鎭, 1695-1778)과 함께 자신의 정원 서원(西園)이 위치해있던 옥류동(玉流洞)에서 시작하여 청풍계(淸風溪)로 넘어가는 등산을 한 후 정선에게 <옥동척강도>와 <풍계임류도>를 그려달라고 주문하였다. 이후 1740년 봄에 이춘제는 서원에 정자를 축조한 후 정선에게 서원의 정자와 관련한 <서원소정도>와 <서원조망도>를 주문하였다. 이 4점의 회화 작품과 아회와 정자에 관련한 시와 기문은 하나의 화첩으로 장황하여 <<서원첩(西園帖)>>이라는 이름 붙인 후 이춘제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었다.

이춘제 가문은 <<서원첩>> 뿐만 아니라 정선의 작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었다. 전주이씨 영해군파에 비장되어 있는 『이가세고(李家世稿)』 내의 이춘제의 문집 『중은재유고(中隱齋遺稿)』와 그의 아들 이창급(李昌汲, 1727-1803)의 『일와옹유고(一畝翁遺稿)』에는 가문이 소장하였던 서적과 화첩의 목록과 정선과의 교류관계에 대한 다수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가문 소장품의 대부분은 정선의 한양진경이라는 특수한 화제에 집중되어 있어, 이춘제 가문이 정선의 한양진경의 중요한 주문자이자 후원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선은 평생을 거주하였던 한양을 말년에 가서야 그리기 시작하였다. 금강산도에서 한양진경으로의 화제가 변화한 데에는 경화세족의 유람과 유거에 대한 인식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다. 경화세족은 금강산과 같은 명산을 가지 않더라도 도성 내에서도 유람과 유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사대부의 명분을 지키면서 문화와 정치의 중심인 한양을 떠나기 싫어하였던 욕망이 정선이라는 지형적 그림에 능한 화가를 만나 ‘한양 진경’이라는 화제가 등장하였다.

Abstract

## Jeong Seon's Hanyang Jingyeong (True-View Landscape Painting of Hanyang) and Li Chun-je's Family

Kim Kahee \*

The Korean artist Jeong Seon (1676-1759) produced the paintings *Climbing Ok-Dong* (1739), *Stream at Punggye* (1739), *Small Pavilion at Western Garden* (1749), and *Viewing Seoul at Western Garden* (1740) to commemorate a meeting between Li Chun-je (1692-1761) who was *Gyeonghwasejok* (prominent family living in the Capital district) and members of the *Soron* (Young Doctrine). All four of the paintings are now kept in different places. Verses and pictures created by the participants were kept at Li Chun-je's house under the title *Seowoncheop* (Album of Western Garden). Li Chun-je's family also kept a large number of paintings by Jeong Seon.

*Jungeunjaeyugo* (Jungeunjae's Posthumous Works), a collection of Li Chun-je's writings, and *Ilwaongyugo* (Ilwaong's Posthumous Works), a collection of the writings of Yi Chang-geup (1727-1803), the son of Li Chun-je, are kept by Yeonghaegun Faction of Jeonju Li Clan. *Anthology of Li Clan* contains the list of books and painting albums kept by the family and many records of the family's relationship with Jeong Seon. Most of the paintings kept by the family are associated with Jeong Seon's *Hanyang Jingyeong* (True-View Landscape Painting of Hanyang), suggesting that the Li Chun-je family was an important patron of Jeong Seon.

It was in his later years that Jeong Seon started producing paintings depicting the

---

\* Seoul National University

scenery of Hanyang (present-day Seoul). The change from paintings of Geumgangsan Mountain to Hanyang Jingyeong (True-View Landscape Painting of Hanyang) as the focus of his interest was influenced by the way the nobility in Seoul had come to view of taking excursions outside Seoul. The *Gyeonghwasejok* (prominent family living in the Capital district) realized that there were many pleasant places to visit and admire in and around Seoul and that they did not have to take the trouble of going all the way to faraway places like Geumgangsan Mountain. *Gyeonghwasejok* as Li family were proud of living in the Capital city of Hanyang, the center of culture and politics. When this pride encountered painter Jeong Seon, talented for topographical landscapes, created true-view landscape painting of Hanyang. Increasing demands of *Gyeonghwasejok* is the decisive cause of production of true-view landscape painting of Hanyang in Jeong Seon's later years .